



민주당, 선거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2일 국립 5·18민주묘역 참배를 앞두고 민주신문 앞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의당, 5·18 참배 박지원·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2일 국립 5·18민주묘역 참배를 위해 '민주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남북 9일 만나자 고위급회담 제안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부가 오는 9일 고위급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화답이다.

〈관련기사 2·3·21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 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당국회담 개최 관련 판문점 채널을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를 협의의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미국과 사전 협의의 여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또는 레벨이 어떻게 될지 하는 건 차치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오랜만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자,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부와 문제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지영기자 jkpark@연합뉴스

## 국민의당 통합 속도전 반대파 쏘아 저지운동

“통추위 구성 2월 초 합당”

“필리버스터로 표결 무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 측은 이번 주 내에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시켜 2월 초 합당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정윤천 최고위원이 참여해 온 ‘2+2’ 채널을 ‘통합추진협의체’로 전환, 3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양 당은 통합 방식은 신설 합당으로, 통합 시한은 다음 달 9일 평창올림픽 개막 이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당은 통추협 구성에 이어 통합 추진에 전권을 부여하는 ‘통추위’ 구성에도 나선다. 통추위의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창당준비위원회’나 ‘신당합당추진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 전대 시행 세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준위를 생략한 채 당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대로 직행하

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통합 반대파는 다양한 전대 저지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대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진행발언)’로 표결을 무산시키는 방안, 전국을 순회하며 전대 개최 반대운동을 벌이는 방안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또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인데다 현실적으로 대표 당원 50% 이상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대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내 놓고 있다. 안 대표 측이 전대 의장 대행에 내세우는 한편 전자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날치기’가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변인을 맡은 최경환 의원은 “안 대표 진영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개최 정족수인 과반 출석을 맞추기 어렵는데다 찬반 무제한 토론 등이 계속 이어져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 반대 진영 일각에서는 통합 반대 전당대회 개최는 물론 집단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견이 커 현실적으로 내부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뉴스초점 - 동광주~광산나들목 방음시설 설치비 1467억 투입

## 방음벽, 소음 저감 효과 놓고 ‘시끌’

설치해도 소음 기준치 넘어

광주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

호남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인 동광주~광산나들목 확장에 따른 소음 유발로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방음시설에 투입 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방음시설에 투입 될 예산의 절반은 시비로 충당해야 해 가뜰스나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양편 10km가 넘는 방음벽·터널이 미관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부분 구간에 예산이 적게 드는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소음저감 효과가 그다지 높지 못할 경우 주민 민원이 계속될 우려도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공사를 1단계(동광주~동림나들목)와 2단계(동림나들목~광산나들목)로 나누고, 북부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면서 공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광주~광산나들목의 확장공사와 관련 지난 2016년 기본설계에 착수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에 따라 공사비를 재조정,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하고 있다.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비는 공사비 2375억원, 보상비 387억원 등

2762억원이었으나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터널을 20.3km 추가하면서 1467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방음벽·터널 설치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소음이 감소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만 허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는 20.3km 가운데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방음터널은 2.4km,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확장에 따른 소음도와 방음시설 설치 후 소음도를 조사해 적시해놓고 있다. 현재 주간·야간 소음기준은 각각 65dB(데시벨), 55dB이다. 동광주~광산나들목을 양쪽 1차로씩 확장할 경우 주변 아파트, 주택, 교회 등 49곳의 소음은 주간과 야간 최대 75.5dB, 72.5dB을 보였다. 여기에 방음벽·터널을 설치하면 40dB 후반에서 50dB 중후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는 방음시설을 설치해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문제로 소음 저감 효과가 좋은 방음터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터널을 설치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곳만 터널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방음벽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소음 저감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광주~광산나들목은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 상습정체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확장을 추진해오다 2015년 광주시와 지역정체권의 노력으로 한국도로공사, 정부와 광주시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상호 받아들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사업비 4229억원의 절반은 시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거기에 사업비가 추가되면 그만큼 시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시는 우선 1단계로 동광주~동림나들목 구간을 확장한 후 상습정체 해소 정도를 살펴보고 2단계 동림나들목~광산나들목 구간에 공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부순환도로 등 이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가거도 등대지기 윤진욱씨 ▶6면

신춘문예-동화·시 당선작 ▶16·17면

호랑이 군단 몸 만들기 한창 ▶20면

##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

광주·전남의 기업인들과 지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객과 늘 함께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